NEXT
Next Expert Training

2018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월 간 리 포 트 모 음

활동권역: 홍 콩
제 출 자: 남 궁 홍

번호	구분	내용
1	현지 동향	2018 HONG KONG BOOK FAIR 개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기사단장 죽이기> 저속물 판정으로 BOOK FAIR 도중 철수 등
2		내년부터 싱가폴로 진출하는 홍콩 아트 바젤 오너들
3		M+, 장영혜중공업의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작업들을 소장하기로 해 화제
4		홍콩의 8월 축제(1,2)와 전통의식 및 관련 행사들(A,B,C)
5		중추절(Mid-Autumn Festival) 관련 현지 동향
6		Jockey Club ifva Everywhere Carnival
7		행사의 계절, 10월의 와인앤다인 페스티벌과 할로윈데이
8		홍콩-중국 광둥성 주하이-마카오를 잇는 55km의 강주아교 개통
9		Para-Sit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 진행
10		경매 총액 27억5000만 billion HKD (약 3,944억 6,000만 원)으로 마무리된 2018 가을 Christies
11	기관 및 단체	TAI KWUN CENTER
12		West Kowloon M+ Pavilion
13		CHAT(Centre for Heritage Arts& Textile) X Mill6
14		홍콩아트센터
15		Broadway Cinematheque & Kubrick BC
16	공간	Para-Site
17		Oil
18		PMQ
19		Edouard Malingue Gallery
20		Empty gallery
21		H Queens
22		ACO(Art & Culture Outreach)
23		GAGOSIAN HONGKONG
24		Green Hub (Old Tai Po Police Station)
25	축제 및 행사	M+ <Envisioning the Museum in the Age of Participation>
26		"We Dance" & ART PARK
27		Fine Art Asia 2018
28	인물 및 행사	Cao Fei
29		Wen Yau
30	인물	C&G (Clara & Gum)

Ⅰ. 현지 동향			
유형	문화 이슈	장르	문화 행사
관련링크	http://www.hkbookfair.com/ https://www.scmp.com/news/hong-kong/community/article/2156092/looking-haruki-murakamis-novel-killing-commendatore-dont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8/jul/25/haruki-murakami-novel-indecent-hong-kong-censors-killing-commendatore		

1. 2018 HONG KONG BOOK FAIR 개최

<행사 개요>

1. 주최: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 기간: 2018년 7월 18일 (수)~7월 21일(화) 7일간
3. 장소: Hong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1 Harbour Road, Wan Chai)
4. 전시품목:
   - 도서 및 출판물 (Books and Publications)
   - 어린이, 청소년 도서 (Children's and Teen's Books)
   - 종교 및 영성 관련 서적 (Religious & Spirituality Books)
   - 문구류, 공예품, 디자인 제품 (Stationery & Art & Crafts Products)
   - 전자책 및 전자 학습 자료 (e-Books & e-Learning Resources)
   - 교육 기관 (Learning Centres)
   - 취미 용품 (Hobby Goods)
   - 멀티미디어 제품 (Multimedia Products)

18일부터 21일간 완차이의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홍콩 북페어는 매해 여름, 수백만명의 관람객이 모이는 홍콩 최대 규모의 도서 박람 축제이다. 이번에도 문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젊은 층부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 중국 본토에서 금서로 취급되는 책들을 찾기 위한 중국인들, 할인 등의 이벤트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올해 총 39개국이 참여, 680명이 출품하였고, 약 104만명이 이 행사에 몰렸다. 참여자 수 기준, 올해 실적은 작년의 약 100만명 보다 약간 웃돌았으나, 참여자 1인당 평균 지출금액은 약 810HKD으로, 열대저기압 태풍으로 인해 6시간 단축 운영한 2017년 (812HKD)과 2016년(902HKD)에 비해 낮아, 2년 연속 평균 지출 감소세를 보였다.

(사진 출처 1,2: 남궁홍, 3: Dabid Wong/South China Morning Post)

<사진1-3: 홍콩 북페어, 2: 한국관 부스>

이 가운데 주홍콩 한국문화원과 총영사관이 함께 한국관 부스에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한 다양한 서적들과 문화원 활동들을 소개했다. 행사 기간 중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한국 부스에서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홍콩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과 재외 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아동 및 문화 관련 컨텐츠 들을 자율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주홍콩 한국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등 소식을 알리는 등 활발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

2.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기사단장 죽이기> 저속물 판정으로 BOOK FAIR 도중 철수

한편 최근, 일본의 인기 작가이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해온 무라카미 하루키(Haruki Murakami)의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Killing Commendatore)'가 홍콩 저작물 심의 위원회로부터 저속물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이번 홍콩 북페어에서도 전시되어 있던 중문판 책들이 모두 철수되었다. 홍콩 저작물 심의 위원회(The Obscene Articles Tribunal)는 위 책을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18세 미만 구독 불가 서적(class II indecent materials)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앞으로는 겉 표지에 18세 미만 구독 금지 라벨이 붙여지고 밀봉된 채로 나이 인증이 된 성인들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다.

Ⅰ. 현지 동향

유형	문화 이슈	장르	아트 페어
관련링크	https://www.theartnewspaper.com/news/art-sg-new-singapore-art-fair https://www.scmp.com/magazines/style/tech-design/article/2155422/art-basel-owner-targets-rich-asians-new-expo-singapore		

내년부터 싱가폴로 진출하는 홍콩 아트 바젤 오너들

Art Basel의 오너 MCH 그룹이 내년부터 새로운 아트페어, ART SG를 싱가폴에 런칭할 예정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예술계의 흐름에 맞춰 아시아 국가들의 신흥 부자들을 타겟팅한 ART SG의 창립행사는 2019년 11월에 싱가폴 Marina Bay Sands의 Sands Expo와 Convention Centre에서 진행되고, 약 80개의 싱가폴, 동남아시아의 갤러리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STYLE지에 따르면 오는 1월 런칭하는 타이페이 지역 페어 Taipei Dangdai의 공동 창업자이자 fair director인 Magnus Renfrew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는 커다란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예술을 시장에 보여주고자 하는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MCH Design and Regional Art Fairs의 managing director인 Frank Lasry**은** '싱가폴은 예술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지역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니즈에 응답하는 페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THE ART NEWSPAPER에 따르면 급속도로 성장하여 이미 북아메리카나 중동 아트마켓의 규모를 이미 넘어선 ASEAN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2시간 이내의 비행으로 닿을 수 있다는 싱가폴의 지리적 이점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싼 렌트 비용과 검열과 관련한 이슈가 항상 제시되어 왔다. 실제로 Art Stage Singapore 페어의 경우 2010년 시작 당시의 성과에 비하여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ART SG의 런칭으로 싱가폴 로컬 예술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아시아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Ⅰ. 현지 동향			
유형	문화 이슈	장르	현대미술
관련링크	https://news.artnet.com/art-world/hong-kong-m-plus-young-hae-chang-heavy-industries-1336103 http://www.thestandard.com.hk/section-news.php?id=199266&sid=11 https://www.scmp.com/culture/arts-entertainment/article/2160669/doing-things-differently-museum-buys-artists-future-works https://www.westkowloon.hk/en/newsroom/news/a-complete-and-growing-archive-of-over-500-works-by-pioneering-digital-artists-young-hae-chang-heavy-industries-now-part-of-the-m-collections/page/1		

M+, 장영혜중공업의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작업들을 소장하기로 해 화제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의 엠플러스(이하 M+) 미술관이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듀오 작가 그룹, 장영혜중공업의 500종이 넘는 비디오 작품과 향후 제작하는 모든 작업들까지 사들여 화제가 되었다. 이번 소장품 구입에 따라 장영혜중공업은 앞으로 매년 두 번씩 미술관에 신규 제작하는 모든 작품들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 매체들에 따르면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움직임이다.

M+측은 이번 구매 건으로 말미암아 현재 디자인, 건축,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미술관 소장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장영혜중공업은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주로 활용하여 텍스트 기반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포함한 영상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대안적이고 변형된 버전의 예술이 주를 이루는 그들 작업들 중 대부분이 작가 웹페이지(http://www.yhchang.com/)를 통해서 오픈되어 있지만 이번 컬렉션 구입에서는 지금까지 출판되거나 보여지지 않은 작업들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한다.

한국인 작가 장영혜와 미국인 작가 Marc Voge가 1999년도부터 장영혜중공업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 인터넷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들 가운데 당시 거의 최초의 시도였다.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메시지들을 간단하게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움직이는 이미지, 시, 그래픽 디자인, 웹디자인 등을 결합하거나 음악을 함께 결합시키는 등 장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작업들을 선보여왔다.

이번 소장품 구입에 대하여 M+미술관 최고경영자 Suhanya Raffel은 "미술관 소장품은 기관의 심장과도 같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미술관의 미션은 디지털 문화가 핵심적인 20-21세기 예술문화의 글로벌한 방향성을 갖고 장르의 해체 및 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장영혜중공업은 온라인으로 작업하는 어떤 예술가들보다도 M+미술관 콜렉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충분한 작가 그룹 이다"고 전했다. 미술관 부관장이자 수석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정도련 큐레이터는 "장영혜중공업의 획기적인 작업들은, 가장 많은 네티즌 수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에 새롭게 자리잡는 동시대 시각문화 미술관인 M+미술관과 매우 잘 맞는다. 우리는 인터넷 아트의 선구자인 장영혜중공업의 작업들에 투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M+는 오는 8월 31일, 장영혜중공업과의 아티스트 토크, 'THE ARTIST TALK TO END ALL ARTIST TALKS — OR, THE STRUGGLE SESSION CONTINUES!'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가그룹의 강연과 함께 타이콴 센터의 대표 Tobias Berger, 그리고 M+의 영상 담당 큐레이터 Ulanda Blair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본 프로그램은 센트럴에 위치한 타이콴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어서 다음날(9월1일)에도 전일에 걸쳐 'M+ Matters: Art and Design in the Digital Realm' 아티스트 토크가 열린다.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소셜 미디어, 창조적 프로그래밍 등에 관해 온라인으로 작업하는 현대 작가들과의 강연과 토크가 진행된다.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출신 작가 최

태윤을 포함한 4명의 작가와 큐레이터 Kerry Doran가 모더레이터로 참가한다. 각 세션의 주제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다.

'Chinternet Stockholm Syndrome': artist talk with Miao Ying

'Making Digital Matter': artist talk with Moniker / Thomas Boland

'Worlding': artist talk with Ian Cheng

'Poetic Computation and Non-Binary Futures': artist talk with Taeyoon Choi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ww.westkowloon.hk/en/home)를 참조할 것.

<사진1-2: 8/31. 9/1 진행토크 프로그램 썸네일 이미지(출처: 정식 홈페이지)>

Ⅰ. 현지 동향			
유형	전통 및 현대 축제	장르	페스티벌, 전통의식, 행사
관련링크	중원절 관련 기사: https://thehoneycombers.com/hong-kong/hungry-ghost-festival-hong-kong-culture/ Summer IFF: https://www.scmp.com/culture/film-tv/article/2156649/hong-kong-summer-international-film-festival-preview-mamoru-hosodas 홍콩관광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discoverhongkong.com/uk/see-do/events-festivals/chinese-festivals/index.jsp C&G Apartment 홈페이지: http://www.candg-artpartment.com/		

홍콩의 8월 축제(1,2)와 전통의식 및 관련 행사들(A,B,C)

1년 365일 축제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콩에는 축제가 많다. 그 중에서도 8월에는 Summer Festival 등 여름 시즌을 기념하는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는 모습이었고, 눈에 띄는 전통 축제들도 그 가짓수가 세 가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5일(음력 7월 15일)에는 중원절이라는 조상숭배 풍습이 깃들어진 축제들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종교기관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각 가정에서는 소규모로, 그리고 예술기관에서는 퓨전 형식의 퍼포먼스로 행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8월의 축제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중원절 행사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1. Hong Kong Summ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ummer IFF)

Hong Kong Cine Fan에서 주최한 홍콩 썸머 국제 영화제, Summer IFF가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전 세계에서 새로운 영화들과 고전 영화들이 동시에 초청되었다. 일본 애니메이터 호소다 마모루(Mamoru Hosoda)와 할리우드 전설적인 배우 오드리햅번(Audrey Hepburn), 그리고 현대 다

큐멘터리를 선도하는 감독 에롤 모리스(Errol Morris)의 회고 작품들과 더불어 한국의 이해영 감독의 독전(Believer,2018)이 초대 상영되었다.

2. Movie Movie Festival; Life is Art

해마다 열리는 Movie Movie Festival은 영화, TV프로그램, 스페셜 스크리닝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영화 페스티벌이다. 올해에는 특별히 현대예술가들의 삶을 다룬 약 20여편의 영화들을 선정해 그들의 예술을 향한 열정과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가수 휘트니휴스턴이 배우로 직접 참여해 그녀의 인생을 다룬 영화 WHITNEY(2018),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에릭클랩튼의 음악으로 굴곡진 삶을 과거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필름, ERIC CLAPTON: LIFE IN 12 BARS(2017),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현대미술 작가, 쿠사마야오이의 아방가르드한 예술세계를 보여준 영화 KUSAMA-INFINITY(2018) 등 굵직굵직한 예술영화들이 PMQ를 포함한 홍콩 시내 다양한 예술 관련 기관에서 스크리닝되었다.

A. 콴타이 탄신일: 8월 5일 (음력 6월24일)

콴타이는 전쟁의 신 또는 무신, 관우의 화신이자 범죄와 처벌의 영역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콴타이 사원은 지명이 변경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마카오 시장 부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만모사원'을 비롯한 홍콩의 유명한 사원들이 이 신을 모시고 있다. 지난 5일은 콴타이 탄생일로 홍콩 전역의 사원에서 다양한 전통의식이 행해졌다. 200년경 한나라 장군이었다가 이후 전쟁의 신으로 승격화된 콴타이 신은 충성과 진실성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B. 일곱자매 축제: 8월 17일 (음력 7월 7일)

중국의 발렌타이 데이로 알려져 있는 일곱자매 축제는 별자리, 견우와 직녀성에 기원을 둔다.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번, 까마귀와 까치들이 놓아준 오작교 위에서 만나는 날, 칠월 칠석날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 민간 전설은 한국, 중국, 일본에 전해져 왔고 중국에서는 사대 민간전설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전설과 관련해 여러 버전의 이야기들이 다르게 전해 내려져오지만 대부분 잔혹하게 헤어져야만 했던 한 연인이 음력 7월 7일이 되면 서로 만난다고 얘기되어진다.
홍콩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바느질 대회 등의 행사가 열리고 Wan Chai의 Bowen Road에 위치한 연인들의 바위(Lovers' Stone)에 공물을 바치며 기념한다고 한다.

C. 중원절: 8월 25일 (음력 7월 15일) X C&G Apartment의 중원절 기념 행사 "On F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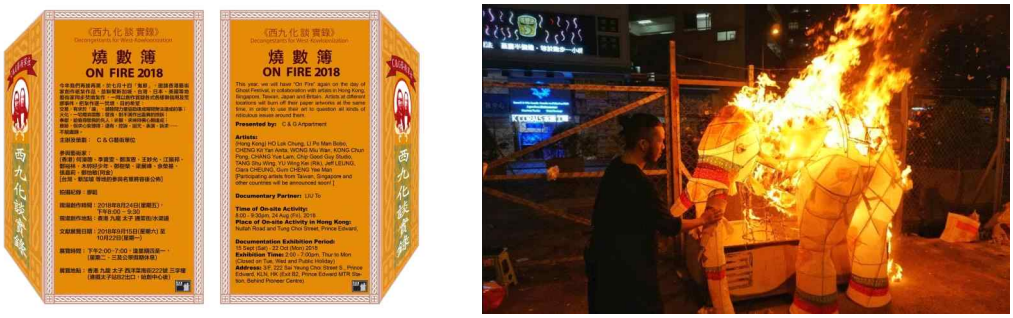
Yue laan Festival, Zhongyuan Festival 또는 The Hungry Ghost Festival라고도 불리는 중원절은 매년 음력 7월 15일로,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고 이승을 떠도는 영혼을 달래는 의미의 행사들이 치러진다. 전통적으로 현지인들은 음력 7월에 잠들지 못한 영혼들이 이승을 떠돌아다닌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히 음력 7월 15일 중원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에게 전통의식을 하며 먹을 것을 바친다. 중원절은 중국의 할로윈데이로도 알려져 있지만 매년 10월 할로윈데이에는 별도의 현대적 이벤트를 하며, 중원절은 보다 중국의 조상 숭배 풍습과 관련 전통적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음력 7월 15일인 8월 25일 즈음하여 길거리 어디서든 음식을 공들여 차려놓고 향을 피우며 가짜 돈이나 공물을 태우는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조상들뿐 아니라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 밖에 음식을 내놓기도 한다. 중원절은 중국 전역에서 100년 이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중국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사진1-3: Wan Chai Pak Tai Temple의 종교의식 진행 사진, 사진4: 길거리 곳곳에서 진행된 소규모 의식 촬영 사진/ 출처: 남궁홍>

올해 중원절, C&G APARTMENT라는 예술 단체에서는 작년에 이어 중원절 기념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전통적 방식으로 제를 지내는 형식과 현대적 퍼포먼스를 가미한 형식-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형식이었고 구룡반도의 Prince Edward역 근처 Nullah Road와 Tung Choi Street의 교차길에서 3-40명의 참여자들과 구경꾼들 사이에서 약 한시간 반동안 이어졌다.

이벤트 현장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통해 실시간으로 소개되고 올해는 특히 세계 여러 나라들-홍콩, 싱가폴, 타이완, 일본, 영국-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홍콩 현지 행사에서는 먼저 전통형식으로 종이 돈을 태우는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 후 참여 작가들이 차례로 제작한 작품들을 태우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다. 작품들은 대부분 종이와 대나무대로 만들어졌고 초대 작가들은 턱없이 높은 집값 문제, 정치사회 문제 등 사회의 현 이슈들을 다루며 전통행사의 형식을 빌어 현대미술의 언어를 구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C&G APARTMENT에 따르면 이번 "불태우는 의식(burning ritual)"은 지구를 둘러싼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들에 대해 간절히 비는 일종의 "트레이딩(trading)" 형식, 사람들의 불만을 영혼에게 전함으로서 "화를 잠재운다(anger release)"는 의미로 모든 것을 "불태워(fire)" 재로 만드는 형식, 그리고 조상을 숭배하며 "마음을 바치고(the act of giving)", 소원이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sincere prayers)", 그리고 누군가를 "치료하거나(curisng)", "수행하거나(performing)", "찾는 것을 돕는 것(help seeking)", 등의 수많은 전통적 관습 등을 따르는 "페스티벌 정신(festival spirit)"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1-2: On Fire 행사홍보용 이미지 및 이벤트 사진/ 출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사진1-3: On Fire 이벤트 현장 사진/ 출처: 남궁홍>

Ⅰ. 현지 동향			
유형	전통 및 현대 축제	장르	페스티벌, 행사
관련링크	http://www.discoverhongkong.com/eng/see-do/events-festivals/chinese-festivals/mid-autumn-festival.jsp		

중추절(Mid-Autumn Festival) 관련 현지 동향

홍콩의 중추절(中秋節)은 한국의 추석(秋夕)과 동일하게 보름달이 뜨는 음력 8월 15일로, 올해는 양력 9월 24일이다. 이 날은 중추(仲秋), 십오야(十五夜) 등으로도 불리우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함께 하는 명절이다. 지난 16일, 태풍 망쿳이 홍콩 전역을 휩쓸고 간 자리에 아직 미처 추스르지 못한 피해 흔적들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거리는 중추절을 기념하는 여러 축제들과 거리 장식들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중추절을 전후하여 홍콩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월병이었는데 한국에서의 송편처럼 명절에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다과의 한 종류이다. 월병(Moon Cake)은 원나라(1271–1368) 혁명가들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혁명을 위한 비밀 서신을 서로 주고받는데 월병을 이용했다고 한다.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월병을 나누어 먹는 것은 흩어진 가족들이 하나로 모인다, 즉 단결과 화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 계란 노른자와 연꽃 씨앗 반죽으로 만드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으나 현대에는 매우 다양한 맛과 모양의 월병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중추절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Tai Hang부터 시작하여 Causeway Bay의 Victoria Park까지 용춤(Fire Dragon Dance) 공연 행렬이 이어지는데 이 행사를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과 현지인들이 모인다. 19세기의 Tai Hang Village에서 용춤이 기적적으로 흑사병의 확산을 막아주었다고 믿게 되어 시작되었다는 이 행사는 중추절의 오랜 주요 의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진1: Fire Dragon Dance 행렬 사진, 사진 2: WanChai 지역의 등불 디스플레이/ 출처: 남궁홍>

한편 홍콩의 여러 지역에서는 등불 디스플레이와 함께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다채로운 색상의 빛나는 등불들을 공공장소에 전시해 놓고 퍼포먼스와 공연, 쿵푸나 곡예, 공예 관련 워크숍 등의 행사가 곳곳에서 열려 가족 단위의 행인들의 신선을 잡아끌었다.

Ⅰ. 현지 동향			
유형	비엔날레, 페스티벌, 카니발	장르	미디어, 영화, 복합예술
관련링크	http://ifva.com/everywhere/		

Jockey Club ifva Everywhere Carnival

<사진1: 행사 홍보 이미지/ 출처: 홈페이지>

2016년부터 2년에 한번씩 열리는 Jockey Club ifva Everywhere Carnival은 Jockey ifva Everywhere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라 말할 수 있는 영화, 미디어 관련 축제이다. 2016년 시작 당시부터 미디어 중심의 컨텐츠들을 커뮤니티에 소개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왔는데, 125개의 창조적 유닛들과 14,500명의 방문객들을 유치했다. 올해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Edinburgh Place in Central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야외 스크리닝(Open-air Screening)과 필름 텐트(Film Tent), 영화적 놀이터(Cinematic Playground) 등의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행사들은 방문객들의 미디어 문화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야외 스크리닝에서는 1982년에 제작된 코메디 영화의 고전, Plain Jane to The Rescue와 프랑스 네오리얼리즘의 시초라 일컬어지는 Jour de Fête (The Big Day)가 상영되어 주목을 끈다.

- 행사명: Jockey Club ifva Everywhere Carnival
- 전시기간: 9/29(토)-10/30(일)
- 운영시간: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상이
- 장소: Edinburgh Place, Central, HongKong
- 관람료: 무료

<프로그램 소개>

야외 스크리닝(Open-air Screening)

-Plain Jane to The Rescue/ 감독: John Woo - 상영시간: 9/29 7:45pm

-Jour de Fête (The Big Day)/ 감독: Jacques Tati - 상영시간: 9/29 9:15pm

필름 텐트(Film Tent)

-Passing the Baton – 상영시간: 9/29 2:00pm

-Ordinary Everyday Life – 상영시간: 9/29 3:15pm

-Life Animated – 상영시간: 9/29 4:00pm

-Documenting the City – 상영시간: 9/29 5:00pm

-On the Verge of Life – 상영시간: 9/29 6:15pm & 9/30 2:00pm

-The Nowhere Home – 상영시간: 9/30 4:00pm

-Metropolos of Fantasy – 상영시간: 9/30 5:15pm

-A Stranger at Home – 상영시간: 9/30 6:15pm

*영화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영화적 놀이터(Cinematic Playground)

12명의 뉴미디어분야의 신생 작가들이 도시, 빛과 그림자 놀이와 관련 있는 주제로 새로운 작업을 선보인다. 인터렉티브 비디오부터 설치, 사운드 조각 등의 새로운 형식의 작업들은 한계가 없는 미디어아트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작업들은 미디어 작품의 연장으로서 액티비티들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양한 예술 형태와의 콜라보레이션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체험존(Experience Zone)

어린이와 어른, 친구들과 가족들 등 다양한 구성의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 Wonder Turner**

16mm필름스트립에 직접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Hand-painted 16mm Film Workshop (29일과 30일 양일, 정해진 시간대 별로 약 한 시간 가량의 세션이 이어짐. 2:30pm / 3:30pm / 4:30pm / 5:30pm / 6:30pm / 9:30pm)

*** Handmade.gif**

28세기 초부터 유래한 더마트로프(thaumatrope)는 gif. image의 옛날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 모양의 접시 양면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그려 넣고 접시를 빨리 돌리면 이미지가 겹쳐지는 착시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은 영화의 원리이다. 더마트로프 기법을 체험존에서 상시 경험해 볼 수 있다.

*** Handmade One-man Cinema**

초기 필름은 깜박이는 불빛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이미지의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잔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 졌다. 휴대전화의 플래쉬 라이트와 특정 스피드로 회전하는 매커니즘을 이용해 단순화된 프로젝트스코프를 만들어보고, 손으로 직접 그린 이미지를 셀룰로이드 필름위에 움직이는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다. 자신의 작업을 언제어디서나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종이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이해하고 제작해보는 워크숍이며 29일 과 30일 지정 시간에 참여 할 수 있다.
(3:00pm / 4:00pm / 5:00pm / 6:00pm / 7:00pm / 9:00pm- Around 30 mins/ session)

*이밖에도 체험존에서는 Paradoxical Guided Tour: a Place not called Edinburgh, Participating Theatre: The Unequal Relationship, Children Dance Trial: Releasing Energy Every Day, Genuine Family Guided Tour 등의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들과 참여형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팝-업 뒤뜰(Pop-up Backyard)

카니발 기간 동안 바쁜 도시의 거리는 인조잔디로 덮여지고 게임을 위한 뒤뜰로 변신하여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들에 착안하여 기획된 놀이들로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48시간 필름 도전(48 Hour Film Challenge)

지난 8월 17일, "Jockey Club ifva Everywhere - 48 Hour Film Challenge" 의 창립 기념 행사가 Hong Kong Arts Centre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도전은 당일 오후 7시부터 8월 19일 오후 7시까지 이어졌고, 50개의 팀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의 마지막 쇼케이스이자 도전에 따른 수상식이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1,2,3,4: ifva Everywhere Carnival 현장 / 출처: 남궁홍>

Ⅰ. 현지 동향			
유형	축제	장르	페스티벌, 행사
관련링크	http://www.discoverhongkong.com/eng/see-do/events-festivals/highlight-events/wine-dine-festival.jsp https://www.straitstimes.com/lifestyle/travel/10-reasons-you-shouldnt-miss-the-hong-kong-wine-dine-festival-2018 https://hkwdf.discoverhongkong.com/online_app_form/booth_application https://www.lankwaifong.com/ http://www.para-site.art/		

행사의 계절, 10월의 와인앤다인 페스티벌과 할로윈데이

청명한 날씨와 적정한 습도로 야외활동에 좋은 홍콩의 10월은 페스티벌의 대표적인 계절이다. 주홍콩한국문화원에서도 10월 한국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 중이며 10월을 맞이하여 홍콩전역에서 할로윈데이, 와인앤다인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 특히 와인앤다인 페스티벌의 경우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으며 25일부터 28일까지 총 4일의 행사 기간 동안 450개의 부스에서 고급 와인 및 기타 주류들과 음식들을 판매했다. 소정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관람객들로 붐볐다. 테마별로 4개의 Zone으로 나뉜 전체 공간은 Admiralty역에서 Central역까지 이어져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방문한 참여자들은 토큰제로 운영되는 부스마다 방문하여 원하는 음식과 주류를 즐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사진1-3: wine and Dine Festival / 출처: 남궁홍>

한편 10월의 마지막 날, 31일경에는 할로윈 분위기를 내기 위한 실내외 장식들로 센트럴 주변 거리가 가득 찼다. 주홍콩한국문화원에서도 할로윈 메이크업을 배워보는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그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홍콩은 할로윈을 즐기기에 아시아 최고의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증명하듯이 31일 저녁 7시부터 란콰이퐁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란콰이퐁 스트리트 파티는 매년 10월 말 귀신 복장을 하고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한편 비영리 갤러리 공간 Para Site에서도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는 스크리닝을 연다. 상영하는 영화는 Leung Chung Man감독의 sci-fi drama, Hong Kong Master 이다. Leung Chung Man 감독은 Gwangong vs. Alien 關公大戰外星人 (2011)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4: Film still from Hong Kong Master(2017) / 출처: para-site 웹사이트>

Ⅰ. 현지 동향			
유형	사회이슈	장르	모든 장르
관련링크	https://www.thenational.ae/world/asia/mega-bridge-connecting-hong-kong-macau-and-china-to-open-on-tuesday-1.783091#7 https://www.bbc.com/news/av/world-asia-china-45949752/world-s-longest-sea-bridge-aerial-shots-over-the-hong-kong-zhuhai-crossing https://www.bbc.com/news/av/world-asia-china-45949752/world-s-longest-sea-bridge-aerial-shots-over-the-hong-kong-zhuhai-crossing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0/0200000000AKR20181020026500089.HTML		

홍콩-중국 광둥성 주하이-마카오를 잇는 55km의 강주아교 개통

<사진 1: 강주아교/ 출처: 연합뉴스>

지난 24일,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큰 관심을 받아온 강주아교가 정식 개통했다. 강주아교는 총 연장 55km의 해상대교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2.8km)의 20배, 우리나라 인천대교(18.38km)의 3배에 달한다. 55km 중, 22.9km는 해상에, 6.7km구간은 해저터널로 연결되어 있다.
2009년 12월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그간 수차례 건설이 지연되어 올해 완공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출입국 절차 시스템을 갖추는 일, 기타 관련 인프라 건설 등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내년부터는 마카오에서 렌터카 서비스가 상용화 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 계약된 차량 외에는 택시 및 개인차량은 대교를 이용할 수 없고, 셔틀버스만 이용 가능하다. 화물 운송업계에서는 강주아교를 이용하면 홍콩국제공항에서 주하이까지 차량 운행시간이 기존 3-4시간에서 40-45분으로 단축되어 개통소식을 반기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희소식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요시간이 중국 정부에서 선전하는 만큼 그렇게 짧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주아교 터미널이 홍콩 란타오 섬에 있기 때문에 홍콩섬 도심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페리 이용이 더 편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세계 환경단체들은 바다 위에 세워지는 교각 건설 소음으로 인해 현재 50여 마리만 남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콩 핑크돌고래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오기도 했다. 핑크돌고래는 1997년 홍콩 중국 반환 소식의 공식 마스코트였다. 거액의 개발비 (890억홍콩달러(한화 13조원))가 투자된 만큼 그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후속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는 바란다는 의견이다.

<사진 2-3: 강주아교 홍보 이미지와 사진을 찍는 기자들/ 출처: China Daily, The National>

Ⅰ. 현지 동향			
유형	행사, 컨퍼런스	장르	현대 미술
관련링크	http://para-site.org.hk/en/conference/what-to-let-go-para-sites-2018-international-conference		

Para-Sit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 진행

홍콩의 대표적인 비영리 현대미술 공간인 파라사이트는 2013년부터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Tai Kwun Center의 오디토리움 공간에서 <What to Let go?>라는 제목으로 3일간 규모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본 컨퍼런스는 국제적으로 다시 새롭게 논란이 되어온 식민지 역사의 문화유산의 반환 이슈를 둘러싼 질문들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과 여러 논쟁들을 다루었다. 가령, 문화유산의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상 문화유산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무엇이 그 카테고리를 결정하고 또는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지 하는 등의 문제이다. 문화 유산의 반환에 대한 담론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식민지배 측의 세력에 게도 점점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데, 현존하는 다양한 논쟁부터 시작하여, 과거 시대의 인디아나 미얀마와 같은 나라들부터 미국연합, 아파르트헤이트에 관한 문제까지, 다시 명명되거나 없어져가는 상징들의 다양한 변화 과정을 다룬다. 파라사이트 기획의 글에 따르면 중국의 다시 떠오르는 국가주의 역시 21세기 중심에서 직면하는 제국주의 헤리티지의 진화된 버전에 놓여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정치적 담론들에서 점점 눈에 띄는 자리의 조각들을 차지한다. 어떻게 하면 예술이 이러한 집단적인 기초 신화를 재구성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본 컨퍼런스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 국가 출신의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상세내용>

11월 22일 목요일

시간	강연자	내용
14.00	Intoduction by Cosmin Costinas and Inti Guerrero	
14.20	Vivian Ziherl	Mercator Sapiens: A Global Heritage and Aesthetics of the Natural
15.00	Jalal Toufic	The Crucified
15.40	Break	
15.50	Riksa Afiaty	Unfolding the other things
16.30	Lia Colombino	The Museo del Barro. Another way of Understanding Heritage
17.10	Naman P. Ahuia	Bringing a History of Erotica, Gender and Sexuality into a Public Discourse
17.50	Break	
18.00	Panel Discussion, moderated by Ozge Ersoy	

컨퍼런스 첫째 날은 큐레이터 및 작가로 활동하는 Vivian Ziherl가 네덜란드 식민지 기업의 폭력적 정당화 사례를 통해 자연법의 개념을 발전시켜 보여주고 이어서 예술가이자 작가인 Jalal Toufic이 예술과 생각이 어떻게 집단적, 기저 신화를 재구성할 수 있을지 논의 했다. 그리고 Riksa Afiaty가 인도네시아의 식민지적 유산의 다른 움직임들을 살펴보았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부터 독립 후 국가들로부터 보여지는 자체적 식민지형태, 즉 현대 버전의 영토 지배 및 집권화를 다루었다. Indigenous Art Museum의 디렉터, Lia Colombino은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큐레이터이자 연구자로서 그녀는 파라과이의 독특한 기관 Museo del Barro in Asunción의 사례를 다루었는데, 식민지적 종교 도상학, 전문 실용적 오브제, 그리고 현대미술간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토착 유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자이자 큐레이터인 Naman Ahuja는 고고학적으로 상징적인 유적, Mohenjo-daro(모헨조다로)를 다시 해석했다.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2600년경에 건설되었던 인더스 문명의 고대 도시로, 현재는 파키스탄 신드 라르카나에 위치해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위키백과) 기존의 가부장적 특징을 지닌 고고학으로부터 "춤추는

여자아이" 로 해석되었던 피규어가 사실은 여자 군인의 재현으로 밝혀진 연구를 통해 인도반도에서의 다른 성(역할) 모델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11월 23일 금요일

시간	강연자	내용
14.00	Tina Pang	Institutions, Popular Culture and Identity
14.40	Pablo Jose Ramirez	Cosmoplanetarisms: Plurilingual Translation and Ironical Exoticism
15.20	Marian Pastor Roces	Contemporary Indigeneity
16.00	Break	
16.20	Melanie Bouteloup	Autohistorias
17.00	Eric de Chassey	Representation vs Abstraction: On the Status of Dis-placed Artworks
17.40	Break	
18.00	Bonaventure Soh Bejeng Ndikung	Those Who are Dead Are Not Ever Gone
19.30	Panel Discussion, moderated by Yeewan Koon	

두 번째 날에는 큐레이터 Tina Pang이 홍콩의 대중문화, 즉 2차 세계대전부터 홍콩 반환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스미디어부터 소비자 공예품까지 나타나는 성 모호성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갔는데 이는 목요일 Naman Ahuja의 강연과 연관성이 있었다. Pablo José Ramirez는 다중언어 통역의 개념을 전통적 매니페스트와 과테말라 등지의 현대 미술가들의 작업을 해석하는데 적용했다. 역사학자이자 큐레이터인 Marian Pastor Roces 현재 두드러지는 담론 중 토착성을 향한 "return"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필리핀의 예술적 실천들에서 보여지는 한계를 다루었다. 이어서 큐레이터 Mélanie Bouteloup은 프랑스와 유럽의 이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최근 담론들에 대한 예술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했다. 예술 역사가 Éric de Chassey와 큐레이터 Bonaventure Soh Bejeng Ndikung는 각각 이전의 식민지 국가의 문화유산을 송환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슈와 실질적으로 기관의 컬렉션과 공공 정책에 시행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11월 24일 토요일

시간	강연자	내용
14.00	Pio Abad	The Collection of Jane Ryan&William Saunders: Reconstruction as Democratic Gesture
14.20	Vali Mahlouji	From Object to Feeling: The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as an Archive of Aspirations and Traumas
15.20	Break	
15.30	Lawrence Abu Hamdan	Walled Unwalled
16.10	Xiaoxuan Lu and Bo Wang	Divergent Memories of Tumen Shan-Shui
16.50	Break	
17.00	Natasha Ginwala	Riots: Slow Cancellation of the Future
17.40	Penary Discussion, moderated by Cosmin Costinas and Inti Guerrero	

<사진1-2: Para-Sit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 진행사진/ 출처: 남궁홍>

<사진3-4: Para-Sit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 홍보 이미지 및 리플렛 이미지/ 출처: para-site 웹사이트, 남궁홍>

Ⅰ. 현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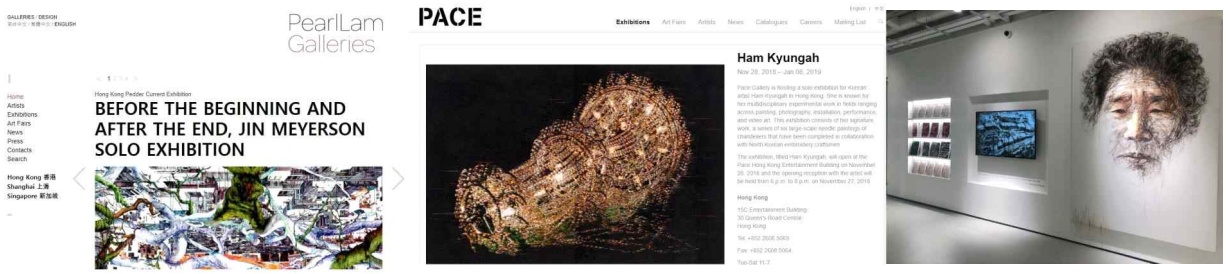
유형	행사	장르	상업미술
관련링크	https://www.christies.com/auctions/hong-kong https://www.barrons.com/articles/christies-nets-hk-2-75-billion-in-hong-kong-fall-auctions-1543443876 https://www.pearllam.com/ https://www.pacegallery.com/exhibitions/12971/ham-kyungah https://www.seoulauction.com/about/page?view=saplus		

경매 총액 27억5000만 billion HKD (약 3,944억 6,000만 원)으로 마무리된 2018 가을 Christies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크리스티 경매가 지난해보다 좋은 성과를 올리며 (지난해 경매 총액 26억2000만 홍콩 달러(한화3677억9560만원) 막을 올렸다. 아시아에서 가장 고가에 낙찰된 기록을 포함해 17건의 경매가 진행되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회화, 세라믹, 20세기 미술과 현대미술 분야 뿐 아니라 쥬얼리, 시계, 와인, 핸드백 등의 경매품이 포함되었으며 많은 기록을 세웠다. 가장 고가에 진행된 경매는 Su Shi(1037-1101)의 Wood and Rock이라는 작품으로, 많은 이들이 다빈치의 작품 Salvator Mundi와 견주어 비교하는 작품이며, 지난 26일 46,360만HKD(약 663억9천2백만원)에 낙찰 되었다. Su Shi는 Su Dongpo로도 잘 알려져 왔는데, 송나라의 저명한 시인이자, 작가, 예술가, 서예가로서 이름을 날렸다.

<Su Shi 의 작품 Wood and Rock COURTESY OF CHRISTIE'S/ 출처: https://www.barrons.com>

이 밖에도 홍콩 예술계는 완연한 가을의 선선한 날씨 속에 많은 행사와 전시들로 더욱 활발히 움직였는데 그 중 한국 작가들의 활약도 대단했다. PACE갤러리에서는 함경아 작가의 개인전이, Pearl Lam 갤러리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인 진 마이어슨의 개인전이 열렸다. 서울 옥션에서는 태백 철암 작가로 유명한 황재형 작가의 개인전이 열려 한국의 현대미술을 홍콩 미술계에 활발히 소개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1-3: 진마이어슨, 함경아, 황재형 작가 전시 소개 자료/ 출처: 각 홈페이지 및 남궁홍>

Ⅱ.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TAI KWUN CENTER**		
	유형	비영리 단체 운영 공공기관	장르	문화예술 기관
	운영주체	Hong Kong Jockey Club(in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of the HongKong SAR)		
	소재지	Central	설립년도	2018
	기관현황	5월 29일 개관		
	홈페이지	https://www.taikwun.hk/en/		

<Tai Kwun Center 와 Hong Kong Jockey Club 의 로고 이미지>

지난 5월, 홍콩섬 센트럴 중앙에 광동어로 '대형 회관, 큰 역(大館)'이라는 뜻인 Tai Kwun은 홍콩 섬 센트럴 중앙에 위치한 복합문화 단지가 문을 열었다. 영국 식민지 시기에 중앙 경찰서(Central Police Station)였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한 복합문화 센터 TAI KWUN CENTER는 크게 중앙 경찰서(Central Police Station), 중앙 관공서(Central Magistracy), 빅토리아 감옥(Victoria Prison)의 세 개의 기념비적 장소와 현대미술 전시용 갤러리 건물, 퍼블릭 아트 스페이스와 강당 및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출처: 남궁홍)

<사진1-3: TAI KWUN CENTER 외부>

홍콩 경마 기수 클럽(Hong Kong Jockey Club)이라는 비영리 공간(1884 설립)이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와의 파트너쉽으로 TAI KWUN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전시와 동시대 미술 전시, 공연, 퍼포먼스, 참여형 워크숍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트상품 및 미술 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상점과 전통 차와 딤섬을 함께 판매하는 레스토랑 등 복합 문화 및 헤리티지 단지로서의 구색을 갖추어, 홍콩 지역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예술을 매개로 홍콩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전시실에서는 홍콩의 역사를 현대적 미감에 맞추어 시각화된 정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러스트 작가가 묘사한 예전의 홍콩 Police Station 내부 및 주변 모습과 홍콩주민들이 시대상을 회고하는 인터뷰 영상 기록물들, 홍콩 식민지 시대를 기록한 여러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사진 출처: 남궁홍)

<사진1-4: TAI KWUN CENTER 내부전경, 4: 워크숍 진행 사진>

JC CONTEMPORARY 건물에서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단체 기획전이 별도로 열리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동시대 예술이란 무엇인가? (What is Contemporary Art?)'라는 제목의 리플렛이 비치되어 있는데 동시대 미술이라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작품의 캡션(lable) 읽는 법, 홍콩 현대미술작가들(Kacey Wong, Chow Chun Fai, Ho Sin Tung)의 작업 방식들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 외에도 Prison Yard 등의 야외 공간을 활용한 한약재 만들기 워크숍,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연장을 활용한 연극 퍼포먼스 관람 및 일요 영화상영 프로그램들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 TIP : Tai Kwun은 홍콩 내 다른 현대미술 기관 및 작가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공공 워크숍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베이스의 콜렉티브 작가 Rimini Apparat의 프로그램 "REMOTE X"는 '우리가 주변의 환경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질문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며 7월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그룹 신청자들이 헤드폰을 끼고 GPS네비게이터의 안내를 받으며 홍콩 시내를 함께 걷는 퍼포먼스 프로그램으로 영어와 광둥어로 진행되는 세션이 나뉘어져 있으니 참고할 것.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West Kowloon M+ Pavilion**		
유형	공립 미술관	장르	현대미술
운영주체	홍콩 정부		
소재지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설립년도	2016년 9월
기관현황	2019년 초 M+ 정식 오픈 예정		
홈페이지	https://www.westkowloon.hk/en/the-district/architecture-facilities/m-pavilion http://mobile-mplus.hk/buildingmpluslearning/		

(사진 출처: 공식홈페이지)

<M+ Pavilion>

엠플러스(이하 M+)는 홍콩 구룡 해안반도의 대규모 문화구역, 웨스트 카오룬 컬처럴 디스트릭트(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에 위치한 시각 문화를 위한 새로운 미술관으로, 20~21세기의 미술, 디자인, 건축과 영상 등을 아우른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받아온 M+는 홍콩 바젤 아트페어가 열릴 2019년 초쯤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M+의 정식 개관 전에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M+ 파빌리온은 전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퍼포먼스 공연 등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예술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 Pavilion**은** 정식 기관 오픈 이후에는 예술가 및 디자이너들과 기관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독립 전시와 이벤트들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 전시 개요>

- 전시명: In Search of Southeast Asia through the M+ Collections
- 전시기간: 2018년 6월 22일~9월 30일
- 장소: M+ Pavilion, West Kowloon
- 전시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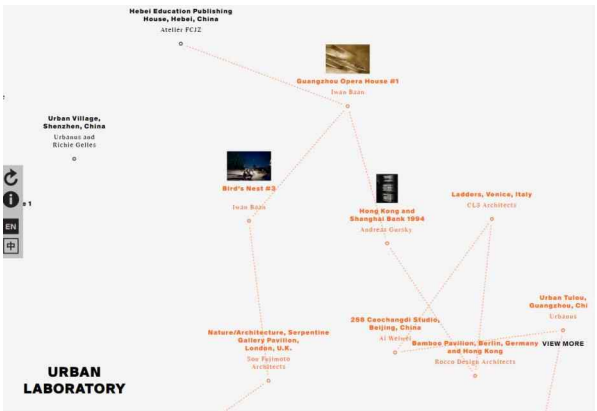
<In Search of Southeast Asia through the M+ Collections>은 특정 지역을 조명하는 전시로는 M+의 첫 번째 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과 건축, 영상(moving image) 및 시각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소장품들을 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Conditions of Place'에서는 작가,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특정 지역 및 환경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역사적 사건이나 일상의 맥락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 봄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States and Powers' 에서는 식민제국주의와 동시대 정치적 이슈 등의 문제를 다루며, 문화적 표현을 복돋우면서도 동시에 제한하기도 하는 'Power'에 대해 재고해 보고 있다. 마지막 주제, 'Transnational Flows'에서는 지역을 넘어서는 국제화 흐름을 포용하고 적극 이용하거나 비판적 사고로 접근하는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조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홍콩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왔는지 홍콩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지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살펴보는데 조금 더 넓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큐레이터와 참여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 및 관련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전시와 연계한 정기 투어 프로그램, 토크 프로그램 및 교육자들을 위한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 TIP : 엠플러스 Online Learning Platform 공간 소개
(http://mobile-mplus.hk/buildingmpluslearning/)

2014년 1월~2월에 진행된 M+Pavilion의 첫 번째 건축 전시, 'Building M+: The Museum and Architecture Collection' 의 주제 담론들과 상호 관계들을 묘사해놓은 온라인 플랫폼이며 이용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연결망으로 구성된 표제어들을 클릭하면 여러 사례들과 추가적인 배경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어 전시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제공한다.



<M+ Online Learning Platform 캡처 화면>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CHAT(Centre for Heritage Arts& Textile) X Mill6**		
	유형	복합예술기관	장르	공예, 시각
	운영주체	The Mills		
	소재지	45 Pak Tin Par Street, Tsuen Wan, Hong Kong	설립년도	2019
	기관현황	2019년 3월 정식 오픈 예정		
	홈페이지	http://www.mill6chat.org/		

Tsuen Wan지역의 Nan Fung Textiles 방직공장이었던 곳이 The Mills의 유산 보존프로젝트의 일환으로 the Centre for Heritage, Arts and Textile (CHAT)로 탈바꿈했다. 자체적으로 기획한 전시와 워크숍 프로그램(co-learn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홍콩의 방직 산업 관련 유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현대미술, 디자인, 과학, 커뮤니티 및 장인 정신을 서로 잇는 새로운 여정을 경험하는 대화의 장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홍콩의 많은 다른 문화공간들이 그러하듯 정식 오픈 전부터 공간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오픈하여 홍보 중에 있었다. 하지만 공간 한편에서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상태로 냉방을 하고 있는 터라 공기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었다.

방직 공장의 기존 컨셉과 함께 배우는 새로운 장을 만들자는 공간의 비전에 맞추어 "CHAT GO! Let's Build a Textile Village"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들이 진행 되고 있었는데, 전시와 영화 스크리닝, 상설 참여 프로그램과 신청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세션이 있었다.

<사진1-4: 공간 내부 사진/ 출처: 남궁홍)>

워크숍의 경우 대부분 공예적 요소를 활용한 손으로 만들어보는 컨텐츠가 많았으나 2016년부터 다른 공간들을 빌려 진행해 온 전시의 경우 현대미술의 탈장르적 특성에 따라 장르 구별 없이 담론을 보여주는 개인전과 단체전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염지혜, 정연두 작가 역시 전시에 참여 한 바 있으며 전 세계 다양한 현대 미술가들이 참여해왔다.

* TIP : 워크숍 참여 및 장소 관람 방법

입장 시 입구 데스크에서 인적사항을 적는 작은 카드를 받아 작성하면 무료로 공간을 방문할 수 있다. 워크숍마다 참여 방법은 상이하나, 대부분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지만 일부 상설로 운영되어 현장에서 바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도 있다. 염색공예 체험, 뜨개질 및 바느질로 소품 만들기, 목공예 체험 등의 프로그램들은 재료비를 포함한 참가비를 받는다.

기관 및	기관/단체명	**홍콩아트센터**

단체

유형	비영리예술기관	장르	복합예술
운영주체	홍콩아트센터		
소재지	2 Harbour Road, Wan Chai, Hong Kong Island	설립년도	1977년
기관현황	15층 건물 중 1~5층을 사용 디지털 3D가 설치된 영화관, 극장, 갤러리, 교실, 스튜디오, 레스토랑, 카페 등을 운영하며 6층 이상부터는 외부 사무실 입주		
홈페이지	https://hkac.org.hk/		

완차이 역에서 빅토리아 하버 방향으로 걷다보면 홍콩의 유명한 건축가 타오호(Tao Ho)가 디자인한 건물, 홍콩아트센터가 있다. 홍콩아트센터는 국내외의 예술교류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전시, 영화 스크리닝,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온 복합문화 공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1977년 설립 이래, 40여년간 약 20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홍콩과 전 세계 다른 지역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해와 로컬 예술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00년에는 Hong Kong Art School(HKAS)이 설립되어 순수예술, 실용예술, 미디어아트, 실용연극, 드라마교육 분야를 교육하는 단기 코스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홍콩아트스쿨 졸업생들의 전시를 아트센터 공간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커미셔닝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예술현장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전시>
- 전시명: 40주년 기념전<Wan Chai Grammatica: Past, Present, Future Tense>
- 작가명: 홍콩 포함 중국,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필리핀 등 세계각지 출신 작가 18명
- 전시기간: 2018년 9월 30일~11월 4일 / 운영시간: 월-일 8am - 11pm
- 장소: Pao Galleries, HongKong Art Centre, 2 Harbour Road, Wan Chai, HK
- 관람료: 무료
- 전시 설명: 홍콩아트센터 설립 40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전시. 홍콩의 정체성을 탐구해보자는 의미에서 홍콩의 상징적 지역, 완차이에 대해 조사해보는 전시이다. 홍콩 출신 작가들을 포함한 18명의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배경, 세대, 출신 국가가 다르지만 모두들 홍콩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다양한 관점과 표현방법을 가진 작가들이 담아내는 완차이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을 즐기기에 흥미로운 전시이다.

<기타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 전시명: <HongKong and Berlin-the exchange goes on!>
- 기간: 2018. 10. 14 – 11. 7 (TALK ON 7 Nov, 7-8pm)
- 장소: Library, Hong Kong Goethe-Institut, 14/F, Hong Kong Arts Centre
- 관람료: 무료
- 주최/주관: Hong Kong Arts Centre, Comix Home Base
- 협력: Goethe-Institut Hongkong
- 토크 프로그램 진행자: Aisha FRANZ (Berlin) 、Bonnie PANG(HK)
- 대상: 40명(5세 이상 신청자)
- 언어: 영어, 광동어 (동시통역)
- 내용: 2017년 6월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코믹 전시<Let's Play Ping Pong! Hong Kong Comics in Berlin>에 이어 두 번째로 홍콩에서 진행되는 전시이다. 당시 전시는 홍콩의 작가들이 베를린 현지 작가들과 재미있는 교류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제적 교류를 기반으로 베를린을 기반으로 일러스트작가이자 코믹북 작가로서 활동해온 Aisha Franz와 홍콩 기반 코믹북 작가 Bonnie Pang가 만나 이야기하는 토크의 장이 이어졌다. 이 두 어린 여성 작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영감, 창조적 작업과정 그리고 도전적 경험들에 대해 다루었다.

<사진1-2: 홍콩아트센터 갤러리 공간 및 아트샵 / 출처: 남궁홍>

Tip: 센터 가장 아래층에는 카페, 아트샵 등의 오픈 공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어 운이 좋으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즉석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Broadway Cinematheque & Kubrick BC**		
유형	영화관, 예술 서적 판매 카페, 갤러리 등	장르	복합예술
소재지	Yau Ma Tei, Public Square St, Prosperous Garden Block 3, Shop H2	설립년도	2001년
기관현황	서점, 카페, 영화관, 영화포스터 전문 숍, 아트상품 숍, 레코드 숍 운영		
홈페이지	http://www.kubrick.com.hk/		

야우마테이의 주거지역 부근에 위치한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 & 큐브릭 BC는 예술영화와 오래된 레코드, 희귀한 영화 포스터, 카페와 독립서적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비싼 땅값으로 유명한 홍콩에서는 그 특성상 복합문화공간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들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의미가 크다. 브로드웨이 시네마테크에서는 홍콩의 다른 메이저급 영화관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립 영화들을 상영하기도 하고, 감독과의 대화 및 전시 등 연계 행사들을 활발히 진행한다. 큐브릭 BC로 구분되는 북카페는 예술관련 서적을 엄선해 보유하고 있으며 파스타, 베이커리 등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 공간과 서점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홍콩의 유명 영화 제작자였던 큐브릭의 오너는 P.O.V.라는 영화전문서점이 있던 자리에 영화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를 다루는 복합적이고 개성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한다. 공간 1층에 카페와 영화관 매표소, 영화 음악과 예술음악 디스크를 판매하는 숍, 그리고 디자인 물품을 판매하는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절판된 레코드, 희귀한 영화 포스터와 OST앨범, 독특한 예술소품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전세계 예술가들과 영화 팬들에게 인기가 좋다. 로컬 작가들의 전시와 워크숍 등도 운영하며 현지 예술계의 발전과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1-3: 브로드웨이시네마테크&큐브릭BC_서점, 레코드숍, 포스터 숍 / 출처: 남궁홍>

Tip: 큐브릭에서 자체 제작하는 매거진 등도 공간에 비치되어 있으며 예술 서적과 소품들은 아래 웹페이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http://www.kubrick.com.hk/index.php/en_us/?___from_store=zh_hk

공간

공간명	**Para-Site**		
유형	비영리 공간	장르	현대미술
운영주체	Para Site	설립년도	1996
소재지	22/F, Wing Wah Industrial Building, 677 King's Road, Quarry Bay, Hong Kong		
홈페이지	http://www.para-site.art/		

<Para Site의 로고 이미지>

파라사이트는 1996년 예술가들(Patrick Lee, Leung Chi-wo, Phoebe Man Ching-ying, Sara Wong Chi-hang, Leung Mee-ping, Tsang Tak-ping, Lisa Cheung)이 모여 만든 비영리 공간이다. 전시와 출판물, 교육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 및 컨퍼런스, 작가 레지던시 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홍콩 지역과 국제적 현상들에 대해 비판적 사고로 접근한다. 파라사이트는 홍콩에서 현대미술 전시를 처음으로 기획해 선보였고, 이후 다른 예술 공간 및 미술관, 교육 기관들과 협업하며 입지를 굳혀왔다.
현재 Quarry Bay 전시 공간에서 진행중인 전시로는 <KOTODAMA>가 있다.

<현재 진행 중 전시 개요>
- 전시명: KOTODAMA
- 기간: 208년 6월 16일~8월 26일
- 참여작가: Isaac Chong Wai, Kiri Dalena, Susan Hiller, Hsu Chia Wei, Kim Woojin, Nortse, Okui Lala, Tang Kwok Hin, Danh Vo, Wong Hoy Cheong, Nicole Wong, Wu Jiaru, Yang Jiechang, Alex Yiu
- 전시설명:

KOTODAMA는 일본어로 언어(Words)가 사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있는 힘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언어는 단지 소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문화에 보존된 기억을 전달하고 지혜를 전수하며 많은 커뮤니티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언어들이 다른 언어들의 문화적 패권, 정치적 억압, 사회경제적 이유 등의 복합적인 작용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전시는 이러한 언어의 특징과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으며 사라지는 언어가 인간의 문화 전반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다루고 있다.

(사진 출처: 남궁홍)

<1,2: Para Site 전시 전경, 3: 7월 20일 렉처 퍼포먼스 진행 사진>

* TIP : 지난 20일, Para Site에서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 Mihai Lukács와의 렉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Cultural & Industrial Slaves: A History Lesson from Romani-Romanian Dialectics>라는 주제로 최근 몇 년간 작가가 연구해 온 "cultural slaves"에 관해 소개하는 자리로, 그의 최근 퍼포먼스 작품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강연 현장을 녹화한 자료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vimeo.com/282246099

공간

공간명	**Oil**		
유형	비영리공간	장르	전시,워크숍,프로그램
운영주체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 The Art Promotion Office(APO)		
소재지	12 Oil Street, North Point, Hong Kong (MTR Fortress Hill Station Exit A)	설립년도	2013
공간현황	요트 클럽에서 사용해온 헤리티지 건물을 그대로 사용, 두 개의 갤러리 공간과, 사무실, 워크숍 공간(실내외)으로 구성		
홈페이지	https://www.lcsd.gov.hk/CE/Museum/APO/en_US/web/apo/about_oi.html		

<Oi! 과 자매기관, vA!, 그리고 운영기관 APO의 로고 이미지>

North Point의 Oil Street 12번지에 위치한 Oi!은 예술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공간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Oi!은 누구에게나 열린 대화의 장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서로 만나 동시대 미술과 문화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들은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

해 젊은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커뮤니티 아트를 활성화시키며 예술로서 서로 협력하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장소로서 발전하고자 한다.

Oi!은 1908년에 Club house of the Royal Hong Kong Yacht Club의 용도로 지어진 2급의 역사적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Hong Kong Visual Arts Centre(vA!)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데, VAC는 지속적인 예술적 발전을 위한 공공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수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Oi!은 보다 수평적으로, 창조성에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들과 대중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들로 예술에서의 경험을 중시하고 가능성을 모색한다.

Oi!이 추구하는 비전은 다음와 같다.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Bridging diverse people),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복돋우며(Sparking a passion for art), 커뮤니티 안에서의 예술이 지속가능하도록 한다(Sustaining art in communities). 창조적인 생각을 지지하고(Fuelling creative thinking),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힘을 주고(Empowering), 서로 연결시키며(Interconnecting),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Stimulating), 상호 반응 한다(Interactive).

<현재 진행 중 전시 1>

- 전시명: A GOOD WASTE OF TIME
- 전시기간: 2018년 6월 15일~9월 9일
- 운영시간: 10am-8pm(월요일 10am-2pm휴관, 공휴일 제외)
- 장소: Gallery1, Oi!
- 관람료: 무료
- 프로젝트 큐레이터: Solomon Yu
- 참여 아티스트: Cheuk Wing-nam, Moss Ho, KoKo Ko, Rogerger Ng, Thomas Yuen, Lau Ming-hang
- 전시설명: Play(놀이)와 interaction(상호반응)은 동시대 예술에서 흔히 사용하는 요소들로, 남녀노소에게 즐거움을 주고 궁금증을 유발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프로젝트 큐레이터는 모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아티스트들을 불러 모아 'fun and Play'라는 주제 하에 전시 공간을 새롭고 인터렉티브한 공간으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판타지들이 넘치는 즐거운 집으로 탈바꿈 시켰다.

<사진1-3: gallery 1 내부 사진/ 출처: 남궁홍)>

<현재 진행 중 전시 2>

- 전시명: Sparkle! Counting the Days
- 전시기간: 2018년 6월 22일~9월 16일
- 운영시간: 10am-8pm(월요일 10am-2pm휴관, 공휴일 제외)
- 장소: Gallery2, Oi!
- 관람료: 무료
- 프로젝트 큐레이터팀: Same Same Different Association ∋ Yentl Tong
- 협력 크리에이티브: Roland Ip + parents and children fighting for the right of abode in Hong Kong; Winki Cho & Michael Wong + migrant domestic workers; v-artivist + mainland parents of HK-born children
- 전시설명: 'Counting the Days'는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인해 국경지대에 걸쳐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의 연결을 시도한다.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술가들 또는 프로젝트 팀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워크숍들을 통해서 공동작업하며 서로 다른 매체들로 생생한 경험을 나타내 보여준다. 다양한 문화, 사회, 그리고 정치적 문맥들과 배경들과 관련한 작업들로 그들은 현재 -'지금, 여기'- 즉,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서로 함께 존재하는 현재를 조사, 연구 하고자 시도한다.

이 전시는 집을 떠나와서 홍콩에 정착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의 매일의 순간들과 감정들의 결을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서로를 향한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Human Library, Film Screening, Exhibition Guided Tours 등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한다.

<사진1-3: gallery 2 내부 사진, 사진4: XCHANGE Back to Basic 진행사진/ 출처: 남궁홍)>

* TIP : 정규 진행 워크숍- XCHANGE

매주 수요일~일요일 정해진 시간에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 워크숍(XCHANGE: Social Gastronomy - Table for U)과 매주 수요일 저녁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조 프로그램 (XCHANGE: Social Gastronomy – Back to Basic)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냉장고 속 남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모여 건강 체조를 함께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컵, 그릇 등의 용기들을 모아 소리를 만드는 워크숍을 하는 등, 환경 친화적, 소통 지향적 소셜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반응도 꽤 좋아 비오는 궂은 날씨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3-40명이상이 모여 앞마당에서 비를 피해 함께 체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술을 배우는 실용, 실습 위주의 다른 워크숍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지역주민들, 아티스트들과의 소셜라이징을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과 차별성을 가진 공간이었다. 참여는 페이스북이나 유선으로 할 수 있고 참가비는 모

두 무료이다.

<사진1-2: 프로그램 진행사진/ 출처: 페이스북, 사진3: XCHANGE Table for U 진행 사진/ 출처: 남궁홍>

공간

공간명	**PMQ**		
유형	복합문화예술기관	장르	공예,디자인
운영주체	the Hong Kong Design Centre,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and Hong Kong Design Institute of the Vocational Training Council 공동운영		
소재지	35 Aberdeen Street, Central, Hong Kong	설립년도	2010
공간현황	약 100여개의 상점, 레스토랑, 디자인 샵 및 공방, 문화예술관련 기관 등이 입점되어 있으며 두 건물의 사이 공간은 대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광장처럼 사용된다.		
홈페이지	http://www.pmq.org.hk/		

PMQ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빌딩, Hollywood와 Staunt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건물은 인접한 길 명칭을 따서 불리우고 있으나 A동, B동으로 간단히 불리기도 한다. 4층 옥상정원을 통해 두 건물을 서로 오갈 수 있으며, 작은 상점들과 레스토랑, 아티스트 레지던시 공간, 공예 및 디자인 관련 공방들이 자리 잡고 있다. 주홍콩한국문화원도 PMQ B블럭(Hollywood) 6,7층에 위치해 있으며 B동 건물 뒤편 계단에는 한국문화원과 PMQ의 협업으로 진행한 이태호 작가의 계단 벽화 '나비의 꿈'이 자리해 있다.
원래 학교 건물로 쓰여지다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손상된 건물이 1951년 하위직 경찰관들을 위한 숙소건물로 재건축 되어 사용되었다. 이후 2000년부터 비어 있다가 2010년, HKSAR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 계획사업에 의해 PMQ로 재탄생되었다. PMQ는 복합 문화예술 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행사와 전시,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또는 입점 공간 및 기관들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진1-2: PMQ 광장 설치물에서 시민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 출처: 남궁홍>

PMQ공간 내에서는 쥬얼리 또는 팬던트 만들기, 채식주의 식단 함께 맛보기, 전통 차 문화 맛보기 등의 전통, 공예, 디자인 분야를 실습해보는 워크숍들과 홍콩의 다른 문화 예술 기관들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하는 페스티벌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건물과 건물 사이 광장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가 가능한 공공미술 작품들을 정기적으로 설치해두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여 참여하는 시민 광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여행객들과 현지인들에게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 TIP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행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프로그램 별로 다양하다.

공간

공간명	**Edouard Malingue Gallery**		
유형	상업갤러리	장르	현대미술
운영주체	Edouard Malingue Gallery		
소재지	6th Floor, 33 Des Voeux Road Central, HongKong	설립년도	2010
홈페이지	https://edouardmalingue.com/		

Edouard Malingue Gallery는 홍콩 기반의 상업 갤러리로 2010년 프랑스 아트딜러 Edouard Malingue에 의해 세워졌다. 새롭게 부상하는 전 세계 동시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선보인다. 작가 개인전들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중요 현대 담론들을 다룬다. 2015년 1월 홍콩의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 이전했고 2016년 상하이에 새로운 공간을 오픈했다. 전시장은 홍콩섬 센트럴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작품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인근 기타 상업 갤러리들과는 달리 현대미술의 주요 담론들을 다루는 전시들이 주로 열리고, 홍콩 현지 작가들을 포함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며 지원해주는 공간으로 홍콩 현대미술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 전시>
- 전시명: Constructing Mythologies
- 참여작가: Truong Cong Tung, Khvay Samnang, Maung Day, Thao Phan-Nguyen, Wang Zhibo
- 전시기간: 9/14(금)-10/18(목)
- 운영시간: 월-토요일 10AM–7PM
- 장소: 6th Floor, 33 Des Voeux Road Central, HongKong
- 관람료: 무료
- 전시 설명: 사회 전반에 그 뿌리를 둔 문화와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는 강력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믿음들은 구조화되고 시각적, 언어적 담론들을 밑거름 삼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알맞게, 그리고 사회적 소통의 구조에 의해 신화(Mythologies)가 된다. 전시는 캄보디아와 중국, 미얀마와 베트남 각각의 나라들에 존재하는 신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은 여전히도 공식적인 내러티브들에 깊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허구의 담론들을 발전시켜 나가며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현실과 역사의 어떤 부분들을 왜곡하고 있다. 어떤 신화들은 특정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집단의 믿음에 의해 생성되는

데 예를 들어 글로벌 자본 시스템이라던지 국가적 경계를 넘어 성장하고 살아남는 구조를 말한다. 그들은 사회에 활력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 표현의 범위에 제한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신화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예술은 그 자체의 허구성과 독립적 담론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된다. 사실상 무엇이든 어디서나 모두 신화가 될 수 있다. 본 전시에서 5명의 작가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현재진행형 다양성을 보여줌으로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비전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그린다.

- 큐레이터: Caroline Ha Thuc
- 부대행사: 오프닝 이벤트(9/13 6-8pm), 토크프로그램(9/14 6pm), 퍼포먼스&워크숍(9/15~16)

<사진1,2: Constructing Mythologies 전시 전경 / 출처: 남궁홍>

Tip: 홈페이지에 갤러리가 후원하는 작가들의 작품 설명과 더불어 여러 담론들을 다루는 인터뷰 등의 다양한 자료들이 아카이브 되어 있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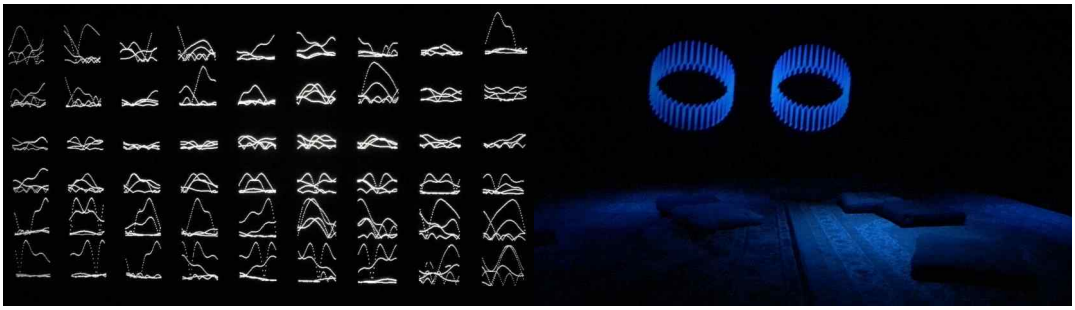
공간명	**Empty gallery**		
유형	갤러리	장르	현대미술
운영주체	Zheng Chengran		
소재지	3 Yue Fung St, Aberdeen	설립년도	2015
공간현황	4,500 평방 피트		
홈페이지	emptygallery.com		

Empty Gallery는 홍콩섬 남서부에 있는 항구도시, 애버딘(Aberdeen)에 위치한 전시공간이다. 센트럴, 소호 등의 중심 지역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임대료 때문에 많은 문화 공간들이 도시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점차 문화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애버딘 지역이다. 이 갤러리는 Zheng Chengran이 창안했는데, 그는 화이트 컬러의 전시장 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블랙 큐브의 공간을 만들어 영상과 소리 위주의 작업들을 선보여왔다.

Forbes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갤러리는 디렉터가 명상을 통해 갖게 된 마음의 경험을 컨셉으로 하여 생겨났다. 디렉터는 명상 중 검은 공간에서 사각형의 검은 공간이 부유하는 경험을 하고나서 어떤 작품이 어울릴까 상상하게 되었고 이후 복합적 감각의 경험과 자기성찰 등을 하면서 내면을 살피는 여정을 위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디렉터 Zheng Chengran은 하버드 대학에서 사진과 영화의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 경험이 미디어와 moving image, 사진과 퍼포먼스 중심의 갤러리를 만드는데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Empty Gallery는 전시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커미션, 공연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홍콩 현대미술의 확장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월 진행 전시>
- 전시명: Thresholds of Percetion
- 작가명: Catherine Christer Hennix(1948)
- 전시기간: 6/30(토)-9/8(토) / 운영시간: 화-토요일 11AM–7PM
- 장소: 3 Yue Fung St, Aberdeen, HongKong
- 관람료: 무료
- 전시 설명: 스웨덴 출신 아방가르드 작곡가이자, 시인, 수학자, 그리고 비주얼 아티스트인 Catherine Christer Hennix가 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이다. 전시는 작가가 통찰한 음악적 작곡 분야와 그녀의 철학적 사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 시각예술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사진1,2: Thresholds of Percetion 전시 전경 / 출처: 남궁홍>

* Tip: 애버딘 지역에 방문한다면 Empty Gallery와 2-3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Exit Gallery(http://www.galleryexit.com/)도 방문해 볼 것. 공장이었던 건물 한 층을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러프한 공간인데 홍콩 현지 작가들을 포함한 젊은 현대미술 작가들 작품을 주로 전시하며 지원하고 있다.

공간

공간명	H Queens		
유형	상업 갤러리	장르	현대미술
운영주체	리 샤우키(Lee Shau-kee)		
소재지	H Queen's, 80 Queen's Road Central, Central	설립년도	2018
홈페이지	http://www.hqueens.com.hk/html/eng/index.shtml		

홍콩섬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센트럴(Central) 퀸스 로드(Queen's Road)에 위치해 있는 26층의 갤러리 특화 건물이다. 부동산 재벌 리 샤우키(Lee Shau-kee)가 소유한 건물로서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수상 회사인 CL3과 건축가 William Lim이 디자인했고, 2015 Asia Pacific Property Awards에서 수상한바 있다. 저층인 1~3층과 제일 높은 층인 25~26층에는 카페 및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고 나머지 층은 전부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이 각 층, 혹은 두 층을 임대하여 입점해 있다.

<입점 갤러리들>
- 데이빗 즈위너(David Zwirner, 5층)
- 갤러리 오라-오라(Galerie Ora-Ora, 17층)
- 하우저&워스(Hauser & Wirth, 15-16층)
- 페이스 갤러리(Pace Gallery, 12층)
- 펄 램 갤러리(Pearl Lam Galleries, 9층)

- 서울 옥션(SA+ Seoul Auction, 11층)
- 탕 콘템포러리 아트(Tang Contemporary Art, 10층)
- 화이트스톤 갤러리(Whitestone Gallery, 7-8층)

<진행 중 주요 전시>
- 전시명: Zeng Fanzhi in the Studio
- 작가명: 정판쯔(Zeng Fanzhi)
- 전시기간: 2018년 10월 8일~11월 10일
- 장소: 하우저&워스(Hauser & Wirth) 15-16층
- 관람료: 무료
- 전시 설명: 하우저&워스 취리히, 런던, 홍콩 지점을 순회하는 정판쯔의 전시 <Zeng Fanzhi in the Studio>는 역사와 문화를 막론하고 추상과 재현 사이의 끝나지 않는 질문과 대화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서 동시대 회화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영향 받아온 세잔느와 조르지오 모란디의 화법과 중국 고서화들의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여 실험해 보는 새로운 형태의 회화 기법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전시이다. 두 층에 걸쳐 진행되는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는 모란디의 작품 한 점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정판쯔의 이번 개인전은 사회비판적 시각과 날카로운 해석력이 돋보이는 기존의 작업들에 비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는 평도 있었으나 작가가 회화 자체에 질문하고 답하는 고민의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전시 구성이 흥미롭다.

<사진1,2: Zeng Fanzhi in the Studio 전시 전경 / 출처: 남궁홍>

<진행 중 주요 전시>
- 전시명: Golden Mean of Jeju Living
- 작가명: 이왈종
- 전시기간: 2018년 10월 18일~11월 17일 10am-7pm
- 장소: 서울옥션(SA+) 11층
- 관람료: 무료
- 전시 설명: 홍콩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왈종 작가의 개인전이다. 작가 특유의 화풍으로 지난 30년간 제주도에서 살아온 일상을 담은 작품들이 화이트큐브 공간을 화사하게 채운 모습이었다. 구상회화로서 외국인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까 한 우려와는 달리 최근 홍콩 사람들에게 제주도가 많이 알려져 있고 밝은 풍의 회화를 선호하는 트렌드로 반응이 좋다고 한다. 지난 18일에는,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해 홍콩민들과 한국 이왈종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작가는 제주도에서 작업해온 회화 작품들과 조각품들을 선보아고 각 작품을 제작했을 때의

에피소드 등을 관객들과 공유해 한국의 문화를 홍콩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 3,4: 이왈종 작가 전시 전경 / 출처: 남궁홍>

공간

공간명	**ACO(Art & Culture Outreach)**		
유형	독립출판 서점, 복합예술공간	장르	복합, 현대미술
운영주체	Art & Culture Outreach		
소재지	Foo Tak Building, 365-367 Hennessy Road, Wanchai, Hong Kong	설립년도	2003
공간현황	14F 메인 사무실, 전 층을 예술 관련 공간에 임대하여 운영		
홈페이지	https://www.aco.hk/		

Art & Culture Outreach는 줄여서 ACO(아코=중국어로 birds of art라는 뜻)라고 불리는 독립출판물 서점이자 아티스트 레지던시, 갤러리, 스튜디오 등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다. 완차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Foo Tak Building은 겉모습으로는 홍콩의 낡고 높은 여느 다른 빌딩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 내부는 예술적 공간으로 꽉차있다. ACO는 환경 파괴 없이 삶을 지속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독서와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다.
독립출판 서점이자 ACO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14층에는 예술 관련 서적들을 판매하며 누구나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소규모의 전시도 열리고 있다. 6층에서는 신진작가들의 전시를 지원하는 갤러리 공간이, 8층에는 스튜디오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 있다. ACO는 2003년부터 독립적으로 공간을 운영해오면서 신진작가들에게 전시 공간, 커뮤니티, 레지던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홍콩 예술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Foo Tak 빌딩의 다른 층 공간들은 적은 임대료로 문화예술 관련 공간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1,2: APO BOOKS 내부공간 / 출처: 남궁홍>

* Tip: 페이스북 페이지(ArtandCultureOutreach, FooTakBuilding)에서 다양한 행사 소식을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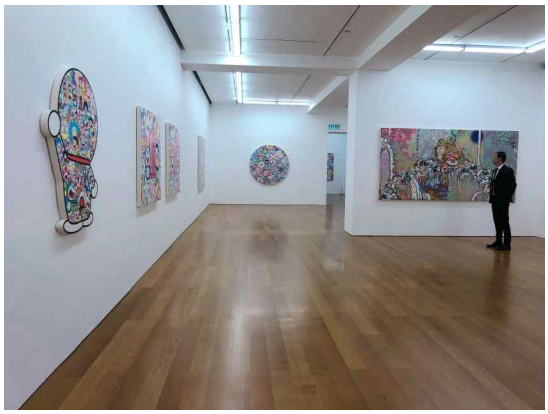
공간

공간명	GAGOSIAN HONGKONG		
유형	상업 갤러리	장르	현대미술
운영주체	Larry Gagosian		
소재지	7/F Pedder Building 12 Pedder Street Central, Hong Kong	설립년도	2011
홈페이지	https://gagosian.com/contact/hong-kong/		

뉴욕, 런던, 파리, 샌프란시스코, 제네바, 로마 등 세계 각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고시안 갤러리는 지난 20여년간 예술시장의 흐름을 주도해온 기업형 사립 갤러리 이다. 예술시장이 발달된 홍콩에서도 화이트 큐브 갤러리, H Queens 입점 갤러리들과 함께 상업미술계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로라하는 전속 작가들과 세계 유명 작가들의 전시를 세련미 있게 선보여 왔다. 센트럴 한복판에 위치한 Pedder빌딩에 2011년부터 자리 잡아 왔다. 패더빌딩에는 Pearl Lam Galleries(6층), Hanart TZ 갤러리(4층), Lehmann Maupin Gallery(4층), Ben Brown Fine Arts와 Massimodecarlo 갤러리(3층) 등의 유명 상업 갤러리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H Queens와 마찬가지로 예술계 컬렉터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업예술계의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진행 중 주요 전시>
- 전시명: Change the Rule!
- 작가명: Takashi Murakami
- 전시기간: 2018년 9월 20일~11월 10일 10am-7pm
- 장소: GAGOSIAN HONGKONG
- 관람료: 무료
- 전시 설명: 무라카미 타카시 작가 특유의 상업적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의 요소들, 전통적인 일본 스타일을 혼합하여 보여주는 방식의 전형적 스타일로 구성된 전시에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글을 함께 비치하여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과거와 현재, 동과 서, 테크놀로지와 판타지의 경계를 다루는 그의 주제를 회화, 조각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Change the Rule! 이라는 전시명은 무라카미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며 창조해낸 그만의 형상들의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Mr. DOB 으로 알려진 그의 첫 번째 캐릭터부터 시작하여 모두 고유의 스토리와 역사가 있는 캐릭터들이 나름의 관계망 속에서 내러티브를 가지며 전시되어 있다. 작가는 지난 2012년도에도 가고시안 홍콩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으며 11월 1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이어서 상하이 PERROTIN 갤러리에서도 TAKASHI MURAKAMI IN WONDERLAND 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갖는다.



<사진1,2: Change the Rule! 전시 전경 / 출처: 남궁홍>

Tip: 전시와 관련한 작가와의 인터뷰 영상을 홍콩예술계의 소식을 활발하게 다루는 매체인 ArtAsiaPacific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artasiapacific.com/Projects/InterviewWithTakashiMurakami

공간

공간명	**Green Hub (Old Tai Po Police Station)**		
유형	헤리티지 공간	장르	문화유산
운영주체	Kadoorie Farm and Botanic Garden (KFBG)		
소재지	11 Wan Tau Kok Lane, Tai Po, Hong Kong	설립년도	2015
공간현황	기존 경찰서 건물을 보존하여 갤러리, 자연친화 농장, 채식 식당, 카페, 워크숍 공간으로 운영		
홈페이지	https://www.greenhub.hk/eng/		

작은 언덕의 Wan Tau Kok에 위치한, 그린 허브는 Old Tai Po 경찰서였던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여 운영하는 헤리티지 공간이다. 기존 시설의 일부를 갤러리 공간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 워크숍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주말이면 오픈 마켓을 열어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와 유기농 식품 및 아이디어 제품 등을 판매한다. 채식 식당과 카페에서도 직접 키운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요리들을 판매하고 있다.
경찰서는 New Territories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로 영구적으로 세워진 경찰서였으며 1899년에 영국 식민을 기념하는 국기게양식이 열린 장소에 지어졌다. The Old Tai Po 경찰서는 1949년까지 경찰본부로 쓰여 졌으며 이후에는 경찰력의 다른 부서들로 쓰였다. 1987년에 새로운 Tai Po 경찰서가 새워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으나, 2009년 12월에 역사적인 건물로서 Antiquities Advisory Board를 통해 지정되었다.(Station Grade 1 Historic Building status)
이후 2010년 9월, the Development Bureau라는 홍콩 정부기관은 Kadoorie Farm and Botanic Garden (KFBG)이라는 단체가 역사적 명소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Old Tai Po 경찰서 공간을 'Green Hub for Sustainable Living' 로 개발 운영하도록 지정했다. 그 이후부터 그린 허브는 기존의 역사적, 건축적 요소들과 생태학적 가치들은 보존하되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 운영되어져 왔다.
식당과 워크숍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대부분 농장에서 직접 수확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어 차(Tea)를 끓여 마시는 등의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자원 봉사자들의 공간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갤러리 공간에서는 기존 경찰서 시설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후 변화와 부족한 자원 등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혹은 소정의 재료비만을 받으며 운영된다.

<사진1-4: Green Hub / 출처: 남궁홍>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M+ <Envisioning the Museum in the Age of Participation>**		
유형	토크, 강연	장르	미술관 교육
운영주체	M+ Pavilion		
개최시기	2018. 08. 03.	시작년도	일회성 행사
개최도시	홍콩		
참가규모	약 70명 내외의 참여자 참가		
홈페이지	https://www.westkowloon.hk/en/whats-on/past-events/envisioning-the-museum-in-the-age-of-participation/start-date/28-08-2017/end-date/28-08-2018		

정도련 수석 큐레이터가 지난달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M+는 이미 운영 중"이다. 2019년 말 완공 예정인 시각문화박물관 엠플러스(이하 M+)는 "이듬해 개관하지만 오래전부터 작품 수집을 하면서 이미 전시와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3/2018072300003.html)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장르와 경계를 망라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는데, 전시와 연계한 강연 및 퍼포먼스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미술관의 역할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 논하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박물관의 조사연구 기능을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는 듯 하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8월 중 진행된

<Envisioning the Museum in the Age of Participation>에 참여해 진행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내용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미술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중과의 협업하는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창의적이고 사회참여적인 문화 프로그램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다소 포괄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Philbrook Museum of Art의 대표이자 Open Field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Walker Art Center의 공공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했던 강연자 Scott Stulen는 관람객 참여(participation)의 원동력과 중요성, 그리고 오늘날 미술관에서 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 나누었다. 그가 몸담았던 미술관 및 문화예술 기관에서 진행해온 괄목할만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며 사례를 통해서 예술과 사회가 만났을 때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보여주었다. 그는 특히 IMA에서의 ARTx program,
the Walker에서 기획한 the first Internet Cat Video Festival (#catvidfest), Community Supported Art (CSA), Artist-Designed Mini Golf, the Open Field initiative 등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는데 쉽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중들을 미술관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성과들을 보여주었다.

<사진1-2: 강연진행 사진/ 출처: 남궁홍>

* 강연자 소개: Scott Stulen
예술가, 글쓰는 작가, 큐레이터, 기획자, 프로그래머이자 DJ로도 활동해온 Scott Stulen은 Philbrook Museum of Art in Tulsa(Oklahoma, United States)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Audience Experiences and Performance at the Indianapolis Museum of Art (IMA)의 첫 번째 큐레이터였고, McKnight Artist Fellowship for Photographers의 대표로도 일해왔다. 뿐만 아니라 Mn Artists at the Walker Art Center와 Associate Curator at the Rochester Art Center (Minnesota)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를 역임하기도 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We Dance" & ART PARK**		
유형	이벤트, 프로그램	장르	복합문화
운영주체	West Kowloon District		
개최시기	2018~2019	시작년도	2018
개최도시	홍콩		

홍콩의 축제들이나 문화행사들에 참여해보면 유난히 커뮤니티 기반의 신체적 활동을 포함한 액티비티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특히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춤을 춘다던지 단체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율이 두드러진다. 액티비티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홍콩사람들을 위해 West Kowloon District에서 퍼포먼스, 댄스, 연극,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 이벤트들을 진행할 수 있는 자연적이면서도 역동적인 ART PARK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7개월 간 이어지는 We Dance프로그램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초대된 댄스그룹들과 함께 전통 춤도 배워보고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위해 마련되었다. 연령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모여 춤을 추는 액티비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즐기는 모습이었고 공원은 그밖에도 수공예품이나 먹거리들을 판매하는 부스들과 현장에서 즉석으로 진행된 공연세트장으로 가득찼다. 운영주체 단체인 West Kowloon District은 Art Park와 인근 부지에 M+파빌리온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위한 인도어/아웃도어 시설을 갖춘 FreeSpace, 세계 최대의 규모로 준비 중인 M+미술관을 비롯한 공연, 연극 세트당 등을 함께 건설 중에 있어 완공 후 대규모 예술 문화 단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준비 중이다.

<사진1,2,3,4: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ART PARK 이벤트 현장 / 출처: 남궁홍>

* Tip: 부지 전체에 아직 건설 중인 건물과 시설이 많아 MTR역에 내려 찾아가는 길이 약간은 황량한 분위기이다. M+ 파빌리온에서 운영하는 셔틀 버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편안히 찾아 갈수 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Fine Art Asia 2018**		
	유형	아트페어	장르	고전, 전통예술
	운영주체	Fine Art Asia and Ink Asia		
	개최시기	9/28~10/2	시작년도	2006
	개최도시	홍콩		

참가규모	약 100여개의 상업예술공간 부스 참가
홈페이지	http://aaifair.com/

홍콩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국제 아트 페어 중 하나로, 2006년부터 시작하여 홍콩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갤러리들이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의 예술과 앤티크 예술을 선보인다. 9월 중순부터 홍콩은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트페어와 홍콩 크리스트, 아시아 옥션 경매 등 추계 아트페어 및 경매가 한창인데 그 중 규모면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다. 5000여년을 아우르는 역사 속의 다양한 문화, 즉 동서양 앤티크, 인상주의, 모던과 동시대 예술을 다루며, 장신구와 사진, 회화, 골동품 가구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인다. 2015년부터는 Ink Asia가 설립되어 함께 운영해왔는데 여기서 Ink는 전형적인 동양의 표현으로, 예술가들의 다양한 비전과 정체성에 대해 유연한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행사 개요>
- 운영시간: 9/28(금) 4-9pm VIP Preview / 6–9 pm Vernissage
  9/29(토)-10/1(월) 11am–7pm Open to public
  10/2(화) 11am–6pm Open to public
- 입장료: 일반 (9/29-10/2) 어른 HK$200 (Admits two)
  학생 및 60세 이상 시니어 HK$50
  어른 동반 12세 미만 어린이 무료

<사진1-2: 페어 현장 사진/ 출처: 남궁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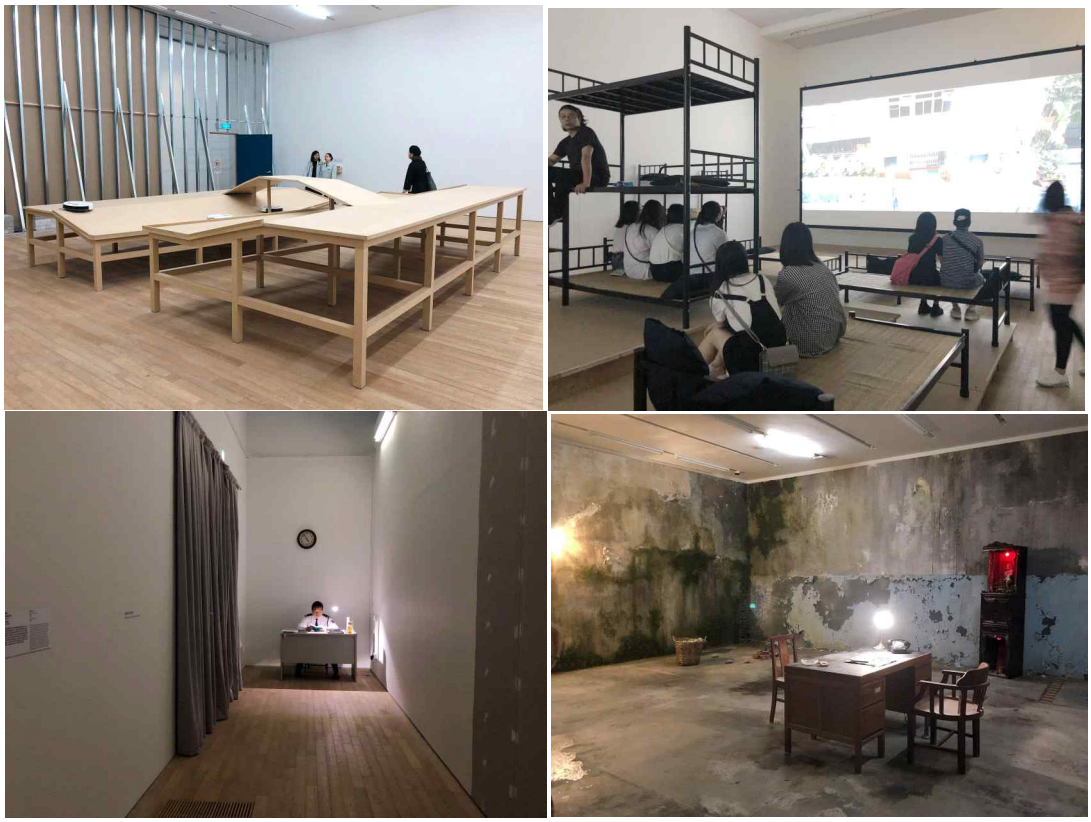
* 창립자 소개: Fine Art Asia and Ink Asia의 창립자 Andy Hei 는 중국 전통 가구 분야의 30년 이상의 전문 딜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2006년 처음으로 Hong Kong International Asian Antiques and Arts Fair를 설립했다. 이 행사는 2010년도에 Fine Art Asia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13여개의 국제 아트 페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왔다. Andy Hei Ltd.와 Andy Hei Consultants Ltd.의 대표이며 Hong Kong Antique and Art Galleries Association의 창립 위원장이자, Exhibition Centre Committee,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Authority(2012-2015)의 멤버이다.

인물 및 행사

인물명	**Cao Fei**
장르	현대미술
관련링크	https://www.theartnewspaper.com/news/artist-cao-fei-gets-double-exposure-on-home-territory https://www.taikwun.hk/en/programme/detail/a%20hollow%20in%20a%20world%20too%20full/185

중국 유명 현대미술 작가 Cao Fei의 개인전이 홍콩 Tai Kwun의 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리고 있어 화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풍부한 불확실성(exuberant ambiguity)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미술관 여러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했다.
Cao Fei는 가상현실, 청춘, 공장, 중국의 지역 문화 등의 키워드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 왔다. 대부분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관계망,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른 영향관계 등을 탐색한 결과물이다. 초현실적이고 유머러스한 시각으로 그려내는 그녀 특유의 분위기로 제작된 작업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질문하며 담론을 만들어 왔다. 이번전시에서 작가는 과거 경찰서였던 건물을 예술기관으로 탈바꿈한 타이콴 센터에 중첩된 역사적, 장소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였는데 타이콴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작업과 더불어 감옥을 재현한 설치물들을 적극 활용하여 깊이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냈다. 가령 감옥 설계자와 죄수라는 두 캐릭터 -타이콴이라는 장소에 얽혀 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복잡한 관계들을 상징하는- 간의 시대와 시간을 넘나드는 시적인 대화를 다루는 영상 작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설치물들이 흥미롭게 배치되어 있다.

<전시 개요>
- 전시명: A hollow in a world too full
- 전시기간: 2018년 9월 8일 - 2019년 1월 4일
- 관람시간: 11am-7pm (금요일 9pm까지 연장 운영)
- 장소: 타이콴 센터, JC Contemporary
- 입장료: 무료



<사진1-4: Cao Fei 개인전 전경/ 출처: 남궁홍>

* 작가 소개: Cao Fei (b. 1978, Guangzhou)는 중국 현대미술 작가 중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대표적 작가 중 하나이다. 상하이 비엔날레, 모스코 비엔날레, 타이페이

비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요코하마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등 수많은 국제 비엔날레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의 Serpentine Gallery, Tate Modern, 뉴욕의 Guggenheim Museum, MoMA, PS1, 파리 Foundation Louis Vuitton, Palais de Tokyo, Centre Pompidou 등 세계 유명 갤러리, 미술관등에 작품을 선보여 왔다.
광저우 출신으로 현재는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지만 작업의 아이디어를 얻는 정신적 고향으로 홍콩을 언급한 바 있다. 그녀는 영화와 설치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 논평, 대중 미학, 초현실주의 관련 자료 등을 자유롭게 혼합하여 다룬다. 빠르게 정신없이 진행되는 중국의 사회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한다.

인물 및 행사

인물명	**Wen Yau**
장르	현대미술, 사회 운동
관련링크	https://www.wenyau.net/wp/whoswy/ https://www.hongkongfp.com/2018/11/20/video-artists-march-silently-blank-placards-tai-kwun-art-space-protest-political-censorship/

11월 18일 타이콴 센터에서는 예술가이자 운동가인 Wen Yau을 포함한 12명의 로컬 예술가들이 자기 검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이자 퍼포먼스는 타이콴 센터에서 반체제 작가 Ma Jian이 강연하기로 한 약속이 취소된 사실에 대해 Wen Yau 작가와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홍콩 정부에 의해 새롭게 오픈한 타이콴센터에서 원래 Ma Jian 작가가 연간 행사로 진행될 문학축제의 일환으로 두 가지의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타이콴 센터의 디렉터 Timothy Calnin이 '센터는 정치적인 플랫폼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며 행사를 취소한 것이다. 이에 작가들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시위 푯말대을 들고 타이콴 센터 내 공공 야외 장소를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를 했으며 Wen Yau은 'I LOVE HK'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중국 국기로 눈을 가린 채 주위를 맴도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여 예술가들은 디렉터의 결정과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압력에 대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예술의 자율성과 자기 검열, 국가와 정치 세력의 개입을 다루는 현대미술 분야의 예술적 퍼포먼스로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푯말은 예술의 미래를 암시 한다고 말했다.

<사진1-2: 퍼포먼스 진행 현장/ 출처: HKFP>

* 작가 소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예술가이자 연구자, 큐레이터이자 작가로서 활동해온 Wen Yau은 지난 몇 년간 주로 퍼포먼스와 라이브아트에 집중해 왔다. 문화적 '다름'과 공공성을 지닌 장소의 intimacy(친밀성)이라는 주제를 주로 다루었고 최근에는 Homage to All Peaceful Revolutionaries (cross-media, 2014-), Painting like an Artist (conceptual painting, 2010-), I am a Grade D Artist (mixed media, 2009-2013), Seeing is Existing (pinhole photographic series, 2008-), cop.ied (cross-media, 2008-),

Civil Left/Right (video & performance, 2007-), i-(s)wear (one-to-one performance, 2007-), TengSeWong/Voice-Writer series (media & live art, 2005-), I pledge (not) guilty (live art, 2004-05),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녀의 작업은 홍콩, 마카오, 중국, 미국, 스웨덴, 핀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슬로바키아, 이태리, 뉴질랜드, 볼리비아 등에서 선보여져 왔으며 교육적인 맥락의 프로젝트들과 전시 기획에도 활발히 참여해 왔다.

인물

인물명	**C&G (Clara & Gum)**	소속	C&G Artpartment
장르	현대미술	연락처	(852) 2390 9332 info@CandG-Artpartment.com
주요 이력	Gum은 홍콩에서 태어나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에서 social work programme을 수료하고 RMIT University(2002)에서 Fine Art를 학사 졸업,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Comparative and Public History를 석사 졸업했다. 그는 School Management Committee의 멤버이자 registered social worker, Hong Kong Art School의 시간강사, C & G Artpartment 창립자, 비영리 예술 공간 "Project 226"의 대표로 활동해 왔다. 2000부터 100개가 넘는 전시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교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왔다. 그의 기획은 주로 정치 비판, 사회 전반의 이슈, 그히고 미술계의 생태계이다. 그의 작품은 페인팅, 드로잉, 퍼포먼스,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사진,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현된다.		
홈페이지	http://www.candg-artpartment.com/		

Clara와 Gum은 홍콩 현대미술 작가들로서 2017년부터 C&G Artpartment라는 현대미술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이들은 홍콩 로컬 지역 문화 예술계의 생태계와 교육 및 사회 정치 문제 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퍼포먼스, 워크숍, 전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루어 왔다.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현재 홍콩 예술계의 균열을 채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

지난 10 년간, C&G는 100명의 현지 작가들을 포함한, 50개가 넘는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다루어왔다. (대표작으로는 "Back To The Basic", "0771", "To Tsang, C.E.", "The Preview of New West Kowloon Exhibition Venue", "Sick Leave", "To Tsang, C.E. 2", "West Kowloon Cultural Revolution District", "6,000" and the "Primitiv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series 등이 있다.)

모든 전시들은 성공적으로 언론과 방문객들의 반응을 얻었고, 지역 작가들과 관객들의 자발적인 토론 참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2013년 겨울부터 'Under the Bed'라는 이름의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매달 진행하고 있다. 'Under the Bed'는 참여 작가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공개하지 않았던 작업을 꺼내어 보여주는 시간으로, 오는 9월 부터는 새로운 버전의 Art Quiz 형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진행 장면>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Clara와 Gum은 좋은 예술 작품은 반드시 그 작가만의 특징적인 개념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C&G의 교육 철학은 학생들을 가두는 어떠한 경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들 스스로 탐색 주제를 자유롭고 예술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 스스로를 작품을 통해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행자의 역할은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해주는 것인데 이를테면, 시각 예술 언어의 사용법, 작품제작 기술, 비판적 사고를 하는 스킬 등과 같은 것들이다. 학생들이 그들만의 독창성을 잘 발전 시킬 수 있다면 그들만의 컨셉 또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하고 예술 교육의 대안적 형태를 고민한다.

* TIP : 지난 스크리닝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산혁명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다룬 다양한 퍼포먼스를 유투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